

한자어와 관계있는 우리말의 어원

진갑곤

문학박사, 경북대학교 강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이 없듯이 언어도 역사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이러한 변화를 겪는 동안에 한자어들이 고유어로 정착된 경우가 많았다. 한자어가 65%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말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한자를 떠나서 우리말을 탐색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지도 모른다. 오랜 세월을 한자 문화권 안에서 생활하다 보니 평소 우리의 고유어라고 생각해 오던 많은 어휘들이 한자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많은 말 가운데 주로 한자에서 파생되거나 한자어인 것, 일본식 한자어 등을 중심으로 그 어원을 밝힘으로써 우리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우리 민족 문화의 일면을 이해하는 단서로 삼고자 한다.

아침부터 아내랑 주식(株式) 문제(問題)로 실랑이를 벌이다 밥도 못 얻어먹고 나왔다가 허기(虛飢)가 저 가게에 가 빵을 하나 사 먹었지만 양에 차지 않아 일찌감치 점심 먹으러 갔다. 을씨년스런 날씨에 설렁탕 생각이 나 식당(食堂)에 갔더니, 김치, 시금치, 싱싱한 오징어 회(膾) 무침에 구수한 송편까지 나왔다. 혼자 포식(飽食)을 하고 나니 별안간 가족(家族)들에게 미

안(未安)한 생각이 들어 전화(電話)를 해서 같이 노래방(--房)에 갔는데, 애들은 십팔번이라며 한두 곡(曲)을 부르고는 저희들끼리 장난치며 야단법석을 떨었다. 한 시간(時間)으로는 직성이 폴리지 않아 몇 시간을 불렀더니 결국(結局) 진이 다 빠져 버렸다. 노래방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우리가 치고 길바닥은 넘쳐나는 하수구(下水溝) 물과 빗물에 떠내려온 쓰레기로 난장판이 되었다. 애들이랑 공원(公園)으로 산책(散策)하러 가기로 한 것은 낭패를 보고 내숭쟁이 막내를 무동 태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빈 대떡을 사 먹으면서 오니 ‘단출한 우리 가족, 행복(幸福)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주식은 곤두박질 쳐서 환장할 듯이 가슴이 답답하고 억장이 무너지지만 그래도 땀 보지 않고 살림 잘 하고 있는 우리 마누라 비위 맞추어 가면서 살다 보면 언젠가는 호지부지되었던 젊은 날의 계획(計劃)이 이뤄질 수 있으리라. 도무지 계획성(計劃性) 없이 홍청거리며 살아가는 내 모습이 늘 아내 보기 면구(面灸)스럽기만 하다.

윗글에서 밑줄 친 말들은 우리말인 줄 알고 쓰지만 사실은 한자어에서 파생되거나 처음부터 한자어인 말들이 대부분이다. 그 가운데는 일본식 한자어도 들어 있다. 이제 제시된 단어를 중심으로 그 어원을 밝혀 보고자 한다.

먼저 한자어에서 파생되어 우리말이 된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랑이’는 본래 과거장(科擧場)에서 쓰던 ‘신래(新來)위’에서 나온 말이다. 관리들이 과거 합격자에게 합격 증서를 주려고 호명할 때 부르는 구령이 ‘신래위’인데, 이때 옆 사람이 합격증서를 받으러 나가는 합격자를 붙잡고 괴롭혔다고 한다. 이 ‘신래위’가 오늘날의 ‘실랑이’가 되어 옳으니 그르니 시시비비를 가리며 못살게 구는 일이나, 수작을 부리며 장난하는 것 등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한편 두 사람이 서로 자기 주장을 펴며 옥신각신하는 ‘승강이’는 ‘승강(昇降)’이라는 한자어에서 온 말이다.

다음 ‘가게’라는 말은 ‘가가(假家)’에서 변형된 말로 18세기의 『동문유해(同文類解)』, 『한청문감(漢淸文鑑)』 등에서 자주 목격된다. ‘가가(假家)’는 글자 뜻 그대로 ‘임시로 지은 집’, 즉 허름하게 지은 임시 건물을 뜻한다. 초기

엔 허드레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 또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휴식처가 되었다가 나중에 오고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장소로 변모된 것으로 추정된다.

‘양에 차지 않는다’는 관용구로서 자주 쓰는 말인데 이때 ‘양’을 수량의 뜻인 ‘양(量)’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위(胃)를 뜻하는 말로 ‘양’을 가리키는 말이다. 『훈몽자회(訓蒙字會)』에서 위(胃)를 ‘양 위’로 풀이하고 있고, 『번역노걸대(翻譯老乞大)』에서는 배를 가르키는 중국어 ‘두아(肚兒)’를 ‘양’이라고 풀이하고 있음을 볼 때 ‘양’은 위나 배를 가르키는 말이 분명한데 이 말은 한자어 양(胖: 위, 배통)을 뜻한다.

‘을씨년스럽다’는 1905년 우리나라 외교권을 일본에 빼앗긴 을사조약(乙巳條約)에서 유래한 말이다. 을사조약으로 온 나라가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는데 그날 이후로 몹시 어수선하고 쓸쓸한 날을 맞으면 마치 을사조약을 맺은 을사년(乙巳年)과 분위기가 같다고 해서 ‘을사년스럽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다. 이것이 음이 와전되어 ‘을씨년스럽다’가 되어 지금은 매우 쓸쓸한 상황 혹은 날씨가나 분위기가 스산하고 쓸쓸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되었다.

‘설렁탕’은 성종 6년(1475) 정월에, 임금이 신하와 여러 백성들과 함께 밥을 먹고 나서, 백성을 위로하는 뜻으로 제사에 쓰인 소로 국을 끓여 국말이 밥과 술을 내렸는데, 이때 선농단(先農壇)에서 먹은 국밥을 ‘선농탕(先農湯)’이라 하고 여기서 ‘설렁탕’이란 말이 나왔다고 한다. 혹은 설렁탕을 오랫동안 푹 끓여서 만들기 때문에 여러 국거리들이 무르녹으며 국물이 흰 빛을 띠게 된다. 따라서 눈과 같이 무르녹는다는 뜻에서 설렁탕(雪濃湯)이 나중에 ‘설렁탕’으로 변했다고 보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임금이나 왕비에게 올리는 밥을 뜻하는 ‘수라(水刺)가 몽고어 ‘술런’에서 차용되었다는 주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설렁탕’의 ‘설렁’도 ‘술런’과 관련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김치’는 16세기의 『훈몽자회』, 『벽온방언해(辟瘟方諺解)』에서는 ‘덤치’, 17세기의 『두창경험방(痘瘡經驗方)』에서는 ‘짐치’, 18세기의 『동문유해』에서는 ‘침치’로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김치의 어원은 한자어 침채(沈菜)(『내훈

『內訓』에 처음 보임)에서 찾고 있다. 김치는 소금에 절인 음식이었기에 이러한 명칭이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김치의 재료인 ‘배추’는 한자어 ‘백채(白菜)’에서, ‘고추’는 한자어 ‘고초(苦草)’에서 나온 말이다. 아울러 ‘상추’는 ‘생채(生菜)’에서, ‘동치미’는 ‘동침(冬沈)’에서 나왔다.

‘시금치’는 뿌리가 붉은 채소라는 뜻의 ‘적근채(赤根菜)’에서 나왔는데, 『훈몽자회』와 『변역노걸대』에서 ‘시근치’라고 하였는데 이는 중국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싱싱하다’는 ‘生生하다’에서 나온 말이다.

‘송냉’은 한자어 ‘숙냉(熟冷)’에서 나온 말로 ‘익힌 찬물’이라는 뜻이다. 숙랭(熟冷)이 ‘숙령>숙닝>숙녕>송녕’의 과정을 거쳤다. 이와 같이 국어화한 한자어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일단 변하기 시작하면 그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고유어로 착각하기 쉽다. 비슷한 예로 ‘성냥’, ‘영계’, ‘암채’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석류황(석류황(石硫黃)>석뉴황>성냥>성냥)’, ‘연계(軟鷄)’, ‘염치(廉恥)’에서 나왔다.

또한 ‘장난’, ‘갑자기’, ‘내숭’ 등도 모두 ‘작난(作亂)’, ‘급작(急作)’이, ‘내홍(內凶)’에서 나온 말이다.

‘빈대떡’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 17세기의 『박통사언해(朴通事諺解)』에 보이는 ‘빙저(餅鰓)’에서 나왔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이것이 『역어유해』(1690)에서는 ‘빙자’로 바뀌어 나오는데, 좀 더 내려오면서 ‘빙’이 ‘빈’으로 바뀌고 ‘떡(>떡)’이 첨가되어 ‘빈자떡’이 되었다가 『조선어사전』(1938)에 비로소 ‘빈대떡’이 보인다. 또 혹자는 옛날 녹두가 귀한 시절에 손님 대접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 내뒀던 손님 접대용 음식이란 뜻의 ‘빈대(賓待)떡’에서 그 유래를 찾기도 한다.

‘판전’은 ‘다른 전(塵: 가게 전)’에서 온 말이다. 옛날에는 물건을 늘어놓고 파는 가게를 전(塵)이라 했다. 판전을 본다는 것은 이미 벌여 놓은 자기 장사가 있는데도 남의 장사를 봐 준다거나, 다른 곳에 또 다른 장사를 펼쳐 놓는 것을 말한다.

‘호지부지’는 한자어 ‘휘지비지(諱之秘之)’에서 나온 말로 꺼리고 비밀스러

위 시비 결과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물쩍 끝내 버리는 것을 뜻한다.

‘도무지’는 ‘도통(都統)’, ‘도시(都是)’ 등과 같은 맥락에서 ‘都無知’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18세기의 『동문유해』, 『한청문감』에는 ‘도모지’로 나와 설득력이 없다. 황현(黃玑)의 『매천야록(梅泉野錄)』에 그 기원이 나오는데 “대원군 시대에 포도청의 형졸들이 살인하기에 염증을 느껴 백지 한 장을 죄수의 얼굴에 붙이고 물을 뿌리면 죄수의 숨이 막혀 죽곤 했는데 이를 ‘도모지(塗貌紙)’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아마 이처럼 끔찍한 형벌을 당하면 움짹달짝도 못하고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는 뜻에서 ‘도무지’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홍청거리다’에서 ‘홍청(興淸)’은 연산군 시대에 전국에서 뽑아 놓은 기생들의 호칭이다(『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연산군이 서울 근교로 놀러 갈 때 왕을 따르는 홍청의 수가 천 명씩 되었고 날마다 계속되는 연회에도 이들 홍청(興淸)과 운평(運平: 연산군 때에, 여러 고을에 널리 모아 둔 가무(歌舞) 기생. 이들 가운데서 대궐로 뽑혀 온 기생을 ‘홍청’이라고 함)이 동원되었다. 연산의 이러한 행각으로 ‘홍청’은 ‘홍청거리다’라는 말을 낳았던 것이다. 그리고 ‘망청’은 ‘홍청’과 운율을 맞추기 위해 쓴 대구(對句)이지만, ‘망(亡)’이 선택된 배경에는 ‘흥(興)하고 망(亡)하는 것이 의미상 대립을 이루며, 더욱이 연산군이 홍청거리며 쾌락에 탐닉하다가 자신을 망(亡)하게 했다는 해석도 아울러 내포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한자어에서 파생된 예로 ‘호락호락(忽弱忽弱)’, ‘물레(文來)’, ‘설매(雪馬)’, ‘대수롭다(大事롭다)’, ‘벽창호(碧昌牛)’, ‘잡동사니(雜同散異)’, ‘회수분(河水盆)’, ‘고로쇠(骨利樹)’, 무궁화(木槿花) 등 얼마든지 들 수 있다.

다음은 앞의 예문에서 사용된 그밖의 한자어를 살펴보기로 한다.

‘별안간’은 한자어 ‘瞥眼間’에 어원이 있다. ‘언뜻 보는 사이’라는 뜻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순식간에 일어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와 뜻이 유사한 말에는 ‘순식간(瞬息間)’이나 ‘찰나(刹那, 산스크리트의 ‘ksana’ 즉 瞬間의 音譯)가 있다.

‘직성이 폴리다’에서 ‘직성(直星)’은 사람의 나이에 따라 그 운수를 맡아본다는 아홉 개의 별로 제웅[羅睺] 직성, 토(土) 직성, 수(水) 직성, 금(金) 직성, 일(日) 직성, 화(火) 직성, 계도(計都) 직성, 월(月) 직성, 목(木) 직성의 아홉 별이 차례로 도는데, 구 년에 한 번씩 돌아온다고 한다. 계도(計都) 직성은 흉(凶)하고, 목(木) 직성은 길(吉)한 별이다. 흉한 직성의 때가 끝나고 길한 직성이 찾아오면 운수가 잘 풀려 만사가 뜻대로 잘 된다는 뜻이다.

‘진이 빠지다’에서 ‘진(津)’은 식물의 줄기나 나무 껍질 등에서 분비되는 끈끈한 물질 곧 진액(津液)을 뜻한다. 진이 다 빠져나가면 식물이나 나무는 말라서 죽게 된다. 그러므로 진이 빠진다는 것은 곧 거의 죽을 정도로 기력이 나 힘이 없다는 뜻이다.

옛날 과거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많은 선비들이 질서 없이 들끓고 떠돌아 대서 정신이 없었다. 그런 과거 마당의 어지러움을 일컬어 ‘난장(亂場)’이라 하였다. 과거 시험장의 난장에 빙대어 뒤죽박죽 얹혀서 정신없이 된 상태를 일컬어 ‘난장판(亂場-)’이라고 하게 된 것이다.

‘낭패(狼狽)’는 본디 전설 속에 나오는 동물의 이름이다. 낭(狼)은 뒷다리 두 개가 아주 없거나 아주 짧은 동물이고, 패(狽)는 앞다리 두 개가 아예 없거나 짧은 동물이다. 그 때문에 이 둘은 항상 같이 다녀야 제 구실을 할 수 있었다. 피가 부족한 대신 용맹한 낭과, 피가 있는 대신 겁쟁이인 패가 호홉이 잘 맞을 때는 관찮다가도 서로 다투기라도 하는 날에는 이만저만 문제가 큰 것이 아니었다. 이같이 낭과 패가 서로 떨어져서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낭패’라 한다. ‘교활(狡猾)’도 역시 전설상의 동물인 ‘교(狡)’와 ‘활(猾)’의 간악함에서 유래된 단어이다.

‘무동 태우다’는 걸립패나 사당패의 놀이에서 여장을 한 사내아이가 사람 어깨 위에 올라 서서 아랫사람이 춤추는 대로 따라 추는 놀이가 있었는데, 이때 어깨 위에 올라선 아이를 ‘무동(舞童)’이라고 한 데서 나온 것이다. 이로부터 어깨 위에 사람을 올려 태우는 것을 ‘무동 태우다’라고 하게 되었다. 순 우리 말로는 목뒤로 말을 태우듯이 한다고 해서 생겨난 ‘목말 태우다’라는 말이 있다.

‘단출하다’는 한자어 홀 단(單)과 날 출(出)에서 나온 말인 듯하다. 식구가 적어 홀가분하거나 옷차림이나 일이 간편하고 간단한 것을 일컫는 말이다.

‘환장하다’에서 ‘환장(換腸)’은 ‘환심장(換心腸)’의 준말로 마음과 내장이 다 바뀌어 뒤집힐 정도로 ‘미치겠다’는 뜻이다. 곧 사고나 행동이 비정상적인 상태로 바뀌어 달라지는 것을 뜻한다. ‘답답하다’는 머뭇머뭇거리는 뜻을 가진 답답(沓沓)(『시경(詩經)』)에서 나온 말이고, ‘억장이 무너지다’의 ‘억장’은 ‘억장지성(億丈之城)’이라는 한자어의 준말이다. 장(丈)이 열 자이므로 ‘억장지성’은 엄청나게 높이 쌓은 성을 말한다. 그러므로 ‘억장이 무너지다’는 ‘억장이나 되는 높은 성이 무너질 정도의 엄청난 일이 벌어져 극심한 슬픔이나 절망감을 느낀다’는 뜻이 된다.

‘비위 맞추다’의 ‘비위(脾胃)’는 소화액을 분비하는 비장(脾臟=지라)과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위장(胃臟)을 합쳐서 칭하는 말이다. 그래서 ‘비위 맞추다’는 비장과 위장이 서로 협력하여야 소화가 잘 되듯이 어떤 일에 있어서 남의 마음에 들게 해 주는 일을 뜻한다.

이외에 자주 쓰이는 말 가운데 ‘억척’은 ‘악착(齷齪)’에서 나왔고, 또 ‘학을 떼다’의 ‘학’은 ‘학질(瘡疾)’을 뜻한다. 학질은 흔히 열이 많이 나는 것이 특징으로 자연히 땀을 많이 흘려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운 곤경에 처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학을 땀다’는 것은 거북하거나 어려운 일로 진땀을 뻘다는 뜻이다.

다음은 불교(佛敎)와 관련된 한자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위의 예문에서 ‘점심’은 16세기의 『순천김씨언간』에 ‘덤심’으로 나와 일찍부터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선종(禪宗)에서 선승들이 수도를 하다가 시장기를 느끼면 마치 공복(空腹)에 점을 찍듯이 소식(小食)하는 것이 ‘점심(點心)’인데, 이것이 일반 사회에 전입되어 쓰이면서 ‘낮에 먹는 끼니’라는 일반적인 의미가 생겨났다. 점심(點心)은 이미 당나라 때부터 쓰였던 말(『당사(唐史)』)인데, 요즘엔 공식적으로 중식(中食)이라고 많이 쓴다. 이 말은 우리말이 아니고 일본식 한자어이다. 이 밖에도 우리 주변에 자주 사용하는 말들 가운데

‘이판사판(理判事判)’, ‘건달(乾達)’, ‘걸신(乞神)’, ‘유리(琉璃)’, ‘중(僧)’ ‘탑(塔婆)’ 등이 모두 불교와 관련 있는 말들이다.

끝으로 일본식 한자어의 예를 몇 가지 들고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십팔번(十八番)’은 ‘가부키 주하치반(歌舞伎 十八番)’에서 온 말이다. 일본의 에도(江戸) 전기의 ‘가부키’(歌舞伎) 배우에 이치카와 단주로(市川團十郎)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9세(世)까지 내려오는 동안 그 집안에 전해져 오는 열여덟 가지의 내로라하는 교갱(狂言: 서민의 일상생활에서 제재를 딴 얘기로서의 희극)을 일러 ‘주하치반(十八番)’이라 했다. 여기서 일본 사람들이 ‘대표적인 장기로 하는 예(藝)’를 이르게 된 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심어져, ‘애창곡, 대표곡, 장기, 가장 잘하는 것’ 등의 뜻으로 되었다.

일본식 한자어의 예로는 ‘부지(敷地→대지, 터(순화어, 이하 같음))’, ‘노견(路肩→갓길)’, ‘할증료(割増料→웃돈, 추가금)’ ‘각선미(脚線美→다리맵시)’, ‘잔업(殘業→시간 외 일)’, ‘택배(宅配→문앞 배달, 집 배달)’, ‘축제(祝祭→잔치, 축전)’, ‘행락철(行樂철→휴가 철, 나들이 철)’, ‘집중호우(集中豪雨→장대비)’ 등을 들 수 있는데, 최근에는 사양(仕樣)이라는 말이 판을 치고 있다. 이 말은 자동차·컴퓨터·건축물 등의 형상·구조·치수·성능·부속물 등에 대한 규정이나 내용을 뜻하는데, 일본어 ‘시요(仕樣)’를 우리 한자음으로 읽은 것이다. 그러므로 ‘사양’은 한자어도 아니고 우리말도 아니므로 ‘제품 사양’은 ‘제품 설명(서)’로, ‘선택 사양’은 ‘선택 품목’으로 순화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단어들이 사실은 한자어에서 온 것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비록 한자어에서 시작되었지만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점차 우리말로 정착되어 사용되었으므로 이 단어들도 고유어 못지않은 소중한 우리말에 속한다. 이 소중한 우리말들의 어원을 알고 쓰면 과학적인 국어 생활이 될 것이고, 또한 국어에 대한 지식과 소양을 높여 줄 것이라 사료된다.

